나의 꿈을 디자인 하다

2013 창의적 커리어패스 사례집

나의 꿈을 디자인 하다

음악 분야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1
직장생활을 하다가음악이 좋아서 뮤지션이 되었어요
• 뮤지션 김아림 … 07

02
드라마로, 노래로, 글을 쓰며 사람들과 공감해요
• 김수미 드라마 작가&작사가 … 17

03
가수로 데뷔까지 했지만 작사에 재능을 발견했어요
• 김태희 작사가 … 27

04
19살부터 뛰어든 가수 생활, 이제 정체성을 찾았어요
• 박소윤 싱어 송 라이터 … 37

05
음악과 음향을 만들어 내는 기술자
• 양성원 음악 프로듀서&엔지니어 … 47

06
작곡과를 나와서 OST로 이름을 알렸어요
• 차여울 싱어 송 라이터 … 55

01

직장생활을 하다가 음악이 좋아서 뮤지션이 되었어요



뮤지션

김아림

김아림

뮤지션

김아림 씨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겸 인디밴드 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다. 원래는 피아니스트로 데뷔해서 앨범활동을 하다가 밴드 음악에 관심이 생겼다. 그 후 '힐링프로젝트'라는 팀을 만들어서 매달 발매한다. 요즘은 새롭게 데뷔하는 친구 타이틀 곡을 맡게 돼서 준비하고 있다.

뮤지션이라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영업도 필요하죠

아림 씨는 소속사 없이 1인 기획사로 시작했다. 원래 '헤아림'이라는 이름의 기획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노르웨이숲'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할 예정이다. 그녀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각각의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룬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이름처럼 다양한 분야에 작곡 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녀는 기존에 직장생활을 10년 정도 하다 음악으로 전업한지는 2년 되었다. 초창기에는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불규칙했지만 요즘은 다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8시쯤 일어나서 운동하고, 12시에 음원사이트에서 새로 나온 앨범들 들어보고, 오후 시간에 곡 작업을 한다. 피아노앨범이 1주일에 하나씩 나오니까, 곡 작업한 후 힐링프로젝트에서는 기타연주를 하기 때문에 기타를 연습한다. 또 저녁 때는 주로 관계자 미팅이라던지 친한 아티스트들 공연을 본다. 또 피아노 연주를 워낙 좋아해서 하루에도 몇 곡씩 만들어서 녹음한다.

반응을 얻으면 기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앨범을 발매하고 그 곡이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을 때 무척 기뻤다. 올해는 힐링프로젝트에서 '뷰티풀데이'가 멜론차트 3위를 했고, '그대와 함께'가 싸이월드 뮤직어워드 신인상을 수상했는데 그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반면 많은 뮤지션들이 그렇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다. 뮤지션들은 사실상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에 비해 수익이 너무 적기도 하고 공연의 경우에도 처음 결성된 팀은 무대에 못선다던지. 수익과 인지도 면이 어려운 때가 많다.

곡 작업을 하면서도 비용은 많이 들어가기 대문이다. 그 곡을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선 편곡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악기 하나하나 추가해야 하고 녹음할 스튜디오를 빌리고 후반 작업 시엔 믹싱과 마스터링을 하는데 프로듀서에 필요한 비용 등등 곡 하나에도 투입되는 인력이 많다.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 쉽지 않다.

화려할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한곡 대박나면 평생 먹고 사는지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그건 운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퀄리티, 좋은 멜로디의 곡을 썼다고 해도 대형 기획사에서는 듣지 않으면 데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림 씨 같은 경우 앨범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회사가 없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전부 개인 돈으로 했다. 힐링프로젝트도 인지도를 쌓기도 전에 모아둔 돈을 모두 다 써서 곤혹스러웠다. 늦은 나이에 음악을 시작하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들면서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다.

직장에 다녔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돼요

직장생활을 경험한 것은 현재 음악 활동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일반 아티스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사회생활 경험 없이 음악만 하셨던 분들은 영업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한다. 직접 가서

자신이 만든 곡을 팔 생각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메일을 보내서 얘기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아림 씨는 무조건 찾아간다. 얼굴 보고 인사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직접 다 만납니다. 행사를 잡을 때도 행사를 할 것 같은 회사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간다. 기업에서 주관하는 공연들에 찾아가는 것이다. 보통은 섭외오기를 기다리는데 먼저 찾아간다.

갑자기 찾아온 시련으로 음악과 마주했어요

아림 씨는 학창 시절에 오직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디자인을 전공했고 대학도 의류 디자인 쪽으로 붙었는데 집안 사정상 큰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게 됐다. 그래서 19살 초반에 우주선 부품설계 연구소에서 일했다.

그런데 21살 때 병이 났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자고 일어났는데 앞이 뿌옇게 보였다.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2, 3년 살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피아노를 시작했다. 라디오밖에 못 들으니까 듣다가 피아노음악이 나와서 따라 쳐봤는데 들리는 대로 쳐지는 것이었다. 따로 피아노를 배우지는 않았다. 그렇게 취미로 치다가 눈 수술 받고 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뭘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은행에 영업직으로 지원했다.

그래서 기업들 대상으로 금융 업무를 했다. 분야가 다르지만 사무직에 너무 질려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영업 직무를 시작한 것이었다. 일은 계속 했지만 이때부터 음악이 너무 하고 싶었다. 취미로도 하고 공연을 좋아해서 자주 보러 다니다 보니 저 무대에 나도 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음악을 하고 싶다면 꼭 대학에 갈 필요는 없어요

아림 씨는 학생들이 어영부영 세월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대학에 가더라도 남자여자 만나고 술이나 마시려면 안 가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음악을 하려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려는 이유로 교수님들 인맥을 쌓기 위해서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아림 씨는 전공생 중에서 상위권 안에 들 자신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체계적인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연습하고 거기서 인맥을 쌓는 것이 낫다고 한다.

좋은 선생님들을 직접 찾는 방법도 있다. 개인 레슨을 통해서 인맥을 쌓는 방법도 있다. 요즘에는 대학에 안 가고 개인 인맥을 쌓는 친구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오디션 프로도 많다 보니 내가 노래가 뛰어나다면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음대는 학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 학비로 자기 계발 하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자기 꿈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꿈은 변할 수 있지만 자기 상황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일단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

실패를 한다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쓴 약 정도라고 보면 된다. 원하는 것이 떠오르면 실행에 옮겨보라고 한다.

많은 경험을 통해 좋은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아림 씨도 많은 경험을 하려고 한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이 돌아다니고 여행도 하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영감이 떠오르고 좋은 음악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뮤지션이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들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모든 뮤지션의 꿈일 것이다.

노력해야 할 부분도 많다. 일단 컴퓨터 작업이 생소해서 부족한 부분은 배워야 한다. 직접 곡 쓰고 편곡해보고 프로듀서로서도 해볼 계획이다.

음악도 함께하는 일이에요

음악을 하는 것은 혼자 하는 일처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또한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다. 한 앨범이 나오기 위해서는 곡을 쓰고, 편곡을 하고 믹싱과 마스터링을 해야 한다. 이 일들을 모두 혼자 하는 사람은 없다.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과 소통을 하고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 일이 경험이 적은 아림 씨에게는 아직 힘든 일이다.

우선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작곡자 의견에 따라 주지만 적절히 자신의 의견도 섞는다.

힘든 일도 있지만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한다. 혼자서는 표현하지 못한 걸 협업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02

드라마로, 노래로, 글을 쓰며 사람들과 공감해요



드라마 작가&작사가

김수미

김수미

드라마 작가 겸 작사가

김수미 씨는 드라마 작가와 대중가요 작사가로 활동하고 있다. 어쨌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수미 씨는 스무 살 때부터 드라마 작가를 꿈꿨다. 하지만 드라마 작가는 어린 나이에 입봉, 즉 데뷔하기 힘든 직업이다. 그래서 글을 쓰며 생활하던 중 우연히 작사가로 먼저 데뷔할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작사가로 활동하던 중 운이 좋게 현재 제작사 대표님을 만나 활동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발레를 했어요

수미 씨는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발레를 했다. 어렸을 때 좋아서 시

작하다 시간이 갈수록 자의 반, 타의 반 그 동안의 투자가 아까워서 계속하였던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예고를 다녔다.

발레를 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 시간에는 음악을 듣는 것이 낙이었고 또 매일같이 일기를 썼다.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서 초, 중, 고 내내 백일장에 꾸준히 참가하였다. 학교 과목 중에서도 국어를 좋아했다. 국어는 그녀에겐 항상 재미있는 과목이었다. 또 수미 씨가 백일장에 자주 나가니 국어 선생님들도 수미 씨를 예뻐해줘서 국어를 더 좋아했던 것 같다고 한다. 또 과학도 좋아했다. 과학에서 실험을 할 때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내는데, 이것이 글을 쓰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것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발레뿐 아니라 예술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음악을 좋아했던 수미 씨는 중고등학교 때는 계속 밴드를 했다. 중학교 때는 관현악 밴드에서 이런 저런 악기를 연주하였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대중적인 스타일의 밴드에서 악기도 다루고 보컬도 조금 했다.

또 방송반에서 아나운서로도 활동했었다. 그러다가 대본작가가 되어 글을 쓰기도 했다. 그 외에도 치어리더도 해본 적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봤다.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알아보는 과정이었다.

오랫동안 발레를 해오며 당연히 발레리나의 꿈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치어리더를 해보면서 자신이 춤을 추는 것을 생각보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발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오히려 글을 쓸 때 끝난 뒤 뿌듯함과 보람이 더 크다는 것도 느꼈다. 게다가 대입을 앞두고 부상도 당하는 바람에 발레리나의 꿈은 포기했다.

부모님은 수미 씨가 하고 싶은 걸 하라는 주의였다. 그래서 딱히 어떤 직업을 강요하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직업을 택할 때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어머니가 책을 많이 읽고 글도 잘 쓰셨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미 씨보다 글을 잘 쓰신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수미 씨도 자연스럽게 책도 많이 읽고, 매일 일기도 썼다.

발레를 포기하고 간 대학을 금방 그만뒀어요

수미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술대학교에 진학했다. 발레를 포기하고 공연 쪽으로 관심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극과에서 예술경영을 전공하였다. 하지만 학교 생활이 정말 맞지 않았다고 한다. 전공 공부도 잘 맞지 않아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한 학기도 다니지 않고 학교를 자퇴했다.

그리고 다시 수능공부를 하며 어떤 공부를 할지 고민했다. 결국 글을

쓰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글을 쓰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좀 다른 세계에서 다른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장 무난한 경영학과를 선택하였다.

글을 쓰는 일과 전혀 다른 학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일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드라마 작가는 많은 직업을 알고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경영학 공부를 하며 여러 분야와 직업들에 대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수미 씨는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재능을 살려 글을 쓰는 일들을 많이 했다. 교수님들께서 쓰시던 월간지 칼럼을 통해 가끔 칼럼을 썼다. 또 아프리카 관련된 한 자선단체에서 월간지 작업을 맡았다. 글을 쓰는 많은 대외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난 기간이었다.

드라마 작가를 꿈꾸며 작사가로 데뷔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수미 씨는 드라마 작가를 꿈꿨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제가 뭘 하면 잘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곤 했다. 교수님부터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물어보며 거의 100명에게 가까이 질문했던 것 같다고 한다. 근데 이 중 거의 80명이 작가가 그녀와 어울린다고 대답해줬다.

작가 중에서도 그녀는 드라마 작가가 세상을 녹여내기에 좋다고 생각했다. 여러 인물들을 다룰 수 있고, 또 사회에 대한 비판과 성찰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기간 안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TV라는 매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녀는 밝은 이야기를 쓰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작품을 쓰고 싶다고 결심했다.

수미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애니메이션 보조 작가로 1년 정도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보조작가가 처한 환경은 열악했다. 작가가 하는 일을 똑같이 다 하는데도 월급은 적고, 이름은 메인 작가의 이름만 올라간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작사가로 데뷔하게 되었다. 당시 SM 엔터테인먼트의 의뢰를 받아 소녀시대의 티저 작사를 맡았는데 발탁이 된 것이다. 그렇게 작사가로 활동하던 중 또 지인의 소개로 현재 제작사의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가 수미 씨의 기획안을 보고는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같이 일하게 되었다. 수미 씨는 자신이 굉장히 운 좋게 일이 잘 풀린 경우라고 말한다.

지금은 한창 재미있게 일하고 있다. 작사를 할 땐 곡이 나올 때, 작가로는 시나리오가 통과되었을 때 엄청난 행복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 수미 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해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주는 밝은 곡과 작품들을 쓰고 싶다고 한다. 앞으로도 작사가 작가 둘 다로 계속해서 활동해 나갈 생각이다.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그런데 수미 씨가 마냥 운만 좋아서 드라마 작가와 작사가가 될 수 있었던 걸까? 그렇지 않다.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항상 준비를 해두세요. 요즘은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공모전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 데 도전해보며 글 쓰는 방식과 형식이라도 배우면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 보조작가들의 경우 타성에 젖을 우려도 있는데 늘 자신의 작품도 써가야 해야 한다. 그래야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미 씨 같은 경우도 보조작가로 활동할 당시 메인 작가 선생님께서 계속 자기 작품을 쓰라고 독려해주셨다. 그래서 수미 씨는 꾸준히 자기 글을 썼고 그렇기에 제작사 대표님을 만났을 때도 기획안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 기획안이 적어도 50장, 평균 100장 분량인데 몇 주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분량이 아니기 때문이다.

드라마 작가는 흔히 대본만 작성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기획안도 작성하게 된다. 기획안의 경우 평균 1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인데 PD와의 회의를 통해 컨셉과 장르 등을 정하면 거기에 맞춰 쓰게 된다. 그 후 수정을 통해 매 회 분의 대본을 쓴다. 작사가의 경우 작사 스타일을 보고 여러 곳에서 의뢰가 들어온다. 작곡가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소속된 회사에서 일을 맡기기도 하고, 또 외부의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올 때도 있다. 작사가의 경우는 일의 범위가 넓다. 그리고 작사의 경우도 하루이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평소에도 꾸준히 준비하며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놨기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세요

작가로서 수미 씨는 어떤 노력을 할까?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직업이기에 필사를 종종 한다. 다른 작가들의 시나 소설을 베껴 쓰는 것이다. 꾸준히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물론 책도 많이 읽는다. 목적에 따라 책을 읽는 방법이 다른데 드라마를 위해 특정 직업에 대해 알아야 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 직업에 관련된 책을 10권씩 사서 읽는다. 반면 글쓰기 공부가 하고 싶을 때는 유명한 작가들의 책을 필사하며 정독한다.

수미 씨는 작가가 되고 싶다면 여러 분야를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판단과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피아노, 노래, 글쓰기, 연기 등 이거 저거 많이 경험해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한다. 그래서 정말 확신이 들고 '내가 굶으면서도 1,2년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각오가 생기면 그때 그 분야에 파고들면 된다.

수미 씨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수미 씨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셨고 지금도 그 선생님은 수미 씨의 멘토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 당시 선생님은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셨는데 개인적으로 수미 씨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다. 백일장에 종종 나가다 보니 교정도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다. 그러다 20살에 제가 작가를 하겠다고 찾아갔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당시에는 실감하지 못했는데, 보조작가로 1년 활동하는 동안 선생님의 말씀이 뼈저리게 와 닿았다고 한다.

03

가수로 데뷔까지 했지만 작사에 재능을 발견했어요

작사가

김태희

김태희

작사가

작사가 김태희 씨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다. 하지만 언어도 좋아해 불문학과에 진학했고 대학교 때 '탈무드'라는 음악 서클에 들어갔다가 우연한 기회에 기획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엔 가수 생활을 하다가 작사에 소질을 발견하여 전문적인 작사가가 되었다. 현재 300여곡의 가요와 드라마 영화 주제가와 삽입곡을 작사했고 보컬트레이너 및 대학 교수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다.

전문 작사가로 일하면서 노랫가사를 만들어요

작사가는 멜로디에 노랫말을 입히는 사람이다. 데모 음원을 받은 후

멜로디가 돋보일 수 있도록 곡에 맞춰 가사를 쓰는 것이다. 즉 전문 작사가의 경우 멜로디가 우선시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싱어송라이터의 경우에는 가사를 먼저 쓰거나 곡을 먼저 쓰거나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다. 가사에 따라 멜로디가 바뀌어도 된다. 이것이 전문 작사가와의 차이다.

태희 씨도 의뢰가 들어오는 곡들에 대해 계속해서 가사를 쓰고 있고, 이 외에도 CCM 앨범을 내기도 한다. 작곡가인 남편과 함께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며 기획 일을 하기도 하며, 보컬트레이닝이나 출강도 다니고 있다.

어릴 땐 호기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태희 씨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은 편이었다. 뭐든 직접 만져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다. 부모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 편이여서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고지식한 면도 있었다. 그래도 부모님이 하라는 곧이 곧 대로 듣는 편이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좋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런 고지식함이 발전해 나중에는 강한 자기 주장을 갖게 되었다. 중고등학교 때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말씀 드렸었다. 예를 들어 운동회 때 달리기 대회에서 그녀가 2등을 했는데 1등과의 상품 차이가 너무 커서 억울했던 적이 있었다. 자기 죽을 만큼 열심히 뛰었는데 1등에게는 공책을 5권이나 주면서 그녀에게는 펜을 하나 준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께 가서 저도 열심히 뛰었으니 공책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다.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심지어는 한 친구를 심하게 다그치는 선생님께 '그렇게 다그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겠냐'는 다소 당돌한 발언도 한 적도 있다.

이렇게 주장이 강한 아이여서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의 역할을 많이 하고는 했다. 하지만 반면 또 내면은 여리고 감성적이었기에 친구들을 잘 위로해주고 상담해주어 모든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잘 어울렸다.

또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부당한 것들을 못 보는 성격이었기에 세상의 비리를 밝혀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검사의 꿈을 가졌었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태희 씨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4~5살 때부터 서울역 시계탑 기둥에 올라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는 했단다.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던 그녀는 중학교 때는 방송반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직접 디제잉 멘트도 써보고 팝송도 틀고는 했다. 당시에 이런 멘트들과 노래 선곡에도 다 정해진 틀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런 틀이 싫고 수동적인 것이 싫어 임의로 진행한 적도 있었다.

또 고등학교 때는 합창단에 들어갔다. 학교가 미션스쿨이라 성가대였는데 당시 그녀는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 그냥 들어갔다고 한다.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불문학과에 진학했어요

그녀는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그래서 전공도 외국어를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중국 무협 드라마에 빠져 있던 때라 중문학과에 가고 싶단 생각을 했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일어학과를 추천해주셨다. 그러던 중 태희 씨의 오빠가 여자는 불어를 해야 예뻐 보이고 나중에 시집도 잘 간다고 했다. 그러더니 그녀도 모르는 사이 원서를 넣어버렸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불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불문학이 지금 일을 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대학이란 공간 자체를 느껴봤다는 것이 하나의 경험이 된다. 작사를 하는 데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는 많은 체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대학이라는 또 다른 체험을 했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한다.

우연히 가수로 데뷔까지 하게 되었어요

대학 입학 후 어떤 서클에 들지 고민하던 중 '탈무드'라는 음악공연 서클이 눈에 들어왔다.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했기에 '저기에 들면 대학가요제 오디션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헤비메탈 그룹이었다.

어쨌거나 열심히 연습해서 팀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던 중 기획사에서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다. 그땐 가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호기심에 기획사라는 공간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서 응했다. 그리고 다음날 기획사에서 '새우깡' CM송 자리가 펑크가 났다며 대신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녹음실에서 처음 녹음을 해보는데 운이 좋게 그녀를 좋게 보신 실장님이 계약 제의를 하여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다.

제 앨범에 가사를 썼다가 일이 연결되어 작사가로 전향했어요

그렇게 앨범을 내던 중 그녀가 직접 작사를 한 곡을 앨범에 담게 되었다. 당시에는 타이틀 곡 외의 곡들은 가수가 직접 작사도 많이 했었다. 이렇게 앨범에 들어갈 곡의 작사를 하다 보니 주위 지인들이 작사를 해달라고 도움을 청해 오기도 했다.

그러다 드라마 OST 작사가를 구하고 있다는 기획사 손님에게 선뜻 자신이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녀가 처음으로 작사비를 받고 작사를 하게 된 곡이었다.

작사를 하다 보니 이것이 자신에게 더 잘 맞는다고 느껴졌다. 태희 씨의 성향이 사람들과 뒤섞여서 무언가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연예인보다는 스텝이 더 잘 맞는다고 느낀 것이다. 또 대학 다닐 때라 학비도 문제였는데 작사는 바로 바로 작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솔직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대학교 2~3학년 때 이후로 작사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1996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작사가로 활동을 하다 2010년에는 대학원에 들어갔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방송영상학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가르치는 것이 적성에 맞는다고 느껴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에는 현재 작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가 없다. 국문학과에 가도 작사를 배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방송과나 음악과도 애매하다. 그래서 나중에 직접 작사가의 감성을 다루는 작사 전문 과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더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결과 2012년에 마침내 작사학과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집에서 아이를 잘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작사가로서의 업무도 할 수 있다는 점은 무척 매력적이다. 태희 씨는 작사가의 일에 만족하지만 다른 꿈도 가지고 있다. 남을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긍정적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을 좋아해서 나중에는 상담 관련 일도 해보고 싶다고 한다. 또 가르치는 일도 계속 해나가서 사람들이 자신으로 인해 희망을 갖고 에너지를 갖게 된다면 좋겠다고 말한다.

지금은 작사가로서 되도록이면 많은 체험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한다. 현재는 에세이와 작사 교과서 책을 쓰고 있고, 가사에 내재된 시대성을 읽어내는 칼럼도 쓰고 있다. 이 외에 라디오 방송이나 특강도 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곡도 최근에 만들었다.

많이 도전하고 체험해봐야 나만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작사가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태희 씨는 작사는 단순히 반짝이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이디어와 상상력은 물론 작가적 기질이 필요하다. 이 작가적 기질이란 결국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작사가로서 오래 일할 수 있느냐도 갈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많은 체험이다. 그렇기에 청소년들도 직접 움직이며 많은 도전과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직접 부딪쳐봐야 문화예술이라는 큰 분야 안에서도 '나만 할 줄 아는 것'을 찾고 가꾸어 틈새시장도 모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04

19살부터 뛰어든 가수 생활, 이제 정체성을 찾았어요



싱어 송 라이터

박소윤



박소윤

싱어 송 라이터

박소윤 씨는 싱어 송 라이터다. 노래를 부르고 곡을 만들며 공연을 한다. 소윤 씨의 하루는 어떨까? 공연이 있는 날은 아무래도 공연 준비를 한다. 전날부터 세트리스트 체크하고 의상체크, 반주, 기타연습 등. 매일 해왔어도 전날에 목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준비를 한다.

공연이 없는 날은 새로운 레퍼토리를 준비하거나 작곡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연습한다. 그 외 여가시간은 영화를 보기도 하는데 곡 쓸 때 도움이 된다.

외향적인 능력을 기르면 도움이 돼요

싱어 송 라이터가 되려면 창의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순발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무대에서 돌발 상황이 많고 현장마다 다르고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날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되면 실력이 좋아도 손해를 볼 때가 있다. 또 무대 위에서 중심이 되서 분위기를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못한다. 그래서 소윤 씨는 주로 후배들에게 멘트 연습을 하거나, 예능을 보라고도 한다.

소윤 씨 역시 무대에 서면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험에서 쌓인 노하우로 무대를 이끈다.

사실 그녀는 이 직업을 택할 때 외향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도 땄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20대 초반에는 쑥스러워하고 말도 못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무대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격증을 땄다. 무대에 서려면 꼭 필요한 능력인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의 스킬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슬럼프에 빠졌던 시기, 가족의 힘이 최고더군요

소윤 씨는 자신의 노래를 듣고 힘이 되었다는 사람들을 만나면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사랑받을수록 책임감이 커지고, 책임감이 감당이 안 될 때는 힘들고 두렵다.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든 때도 있었다. 자신의 무대 위에서 책임을 질 자신이 없었다. 스케줄에 쫓기다 보니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꼈고 연습 할 시간이 없어서 에너지가 방전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은 하루의 시간을 주시는 건데 그게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웃을 수가 없었다. 내 노래를 듣고 기분 좋아지려고 오시는 건데 그걸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책도 보고 친구들도 만났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들과 생활하며 차츰 나아졌다.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도움이 되었다. 정말 힘이 드니까 정말 소중한 걸 깨닫게 되었다.

화려해 보이는 가수, 사실은 무척 힘들어요

그녀는 음악을 오래하면서 소속사도 여러 번 바뀌었다. 소속사가 있어서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도 많았다. 그런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신의 성향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속사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았다.

소속사에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음악장르를 강요한다든지, 성형을 강요한다든지 주로 그런 걸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된다. 보컬 중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와 회사에서 요구하는 장르가 달라서 고민하

는 친구가 많다.

무대에서는 예쁘고 화려해서 좋아 보인다. 하지만 정말 힘들다. 가장 힘든 점은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비교적 잘 풀린 케이스임에도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한다.

곡이 히트를 치는 것은 극히 일부다. 작곡가 같은 경우 곡을 써줘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윤 씨는 다행히 공연, 행사, 축제 같은 일들을 잘 연결하고 이어갔다.

어릴 때부터 오직 음악만을 꿈꿨어요

소윤 씨는 어렸을 때부터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초등학교부터 늘 꿈이 가수였다. 고등학교 때는 밴드를 했었고, 초등학교 때도 시간이 있으면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곤 했다. 사춘기 때는 낯을 심하게 가리기도 했지만 어릴 때부터 동네친구들 모아놓고 단상에 올라가 노래 부르는 것을 즐겼다. 그녀는 늘 노래를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

어렸을 적엔 부모님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셨는데도 공부를 안 했다. 보컬 레슨을 받는데 전날까지 연습도 안했다. 지금 하는 것만큼 했더라면 대성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풍족해서인지 간절함이 덜했고 부족함을 몰라서인지 열심히 안했던 것이 아쉽다.

소윤 씨의 꿈을 어머니는 지지해주었지만 아버지는 반대했다. 아버지는 돈 잘 버는 직업을 원하셨고 불안한 직업을 싫어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응원해주시고 팬이 되어주셨다.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어요

싱어 송 라이터가 되고 싶었던 소윤 씨는 뒤늦게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작곡과 노래를 동시에 하는 싱어 송 라이터에 가장 잘 맞는 과를 찾았다. 그런데 일본에는 과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T.S.M 시부야(도쿄스쿨오브뮤직)에서 공부를 했다.

좀 늦게 간 대학이지만 무척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학은 그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넓은 시야를 열어줄 수 있고,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물론 꼭 대학에 가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 나와서 직접 부딪치고 경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소윤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 대학 진학이 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힘든 시절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소속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후에 음악에 대한 코드가 잘 맞지 않으면서 회사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 많이 답답했고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게 없었다.

특히 일본에 있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한 적도 있었다. 잠을 자지 않고,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야 원하는 꿈에 다다를 수 있다. 그게 100프로 도움이 됐다.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감사함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무대에 서는 것으로 돈을 받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배웠다. 힘들더라도,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변한 것이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니까 상황도 달라졌다. 자기를 끝까지 몰아붙여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음악을 하고 싶다면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소윤 씨는 말한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확실히 서야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해야 음악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내가 나라는 정체성이 없는 상태에서 음악을 만들고 부른다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갈 수 있으려면 달라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부단히 노력하며 내 이름을 건 콘서트를 할 거예요

작년에는 기타연습을 많이 했다. 하루 10시간 이상 씩 같은 자세로 수 개월을 연습에만 매진하다 보니 목 디스크가 걸렸다.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사람이라, 굳은 살이 박이거나 손가락 모양이 변하는 것은 예삿일이고 손에 쇠독이 오르고 손톱도 망가져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한다.

최근엔 기획사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마케팅 책을 보고 있다. 새로운 앨범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스스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케팅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건 콘서트를 전국에서 하고 싶고 그것을 이룬 후엔 더 넓은 아시아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싶다고 한다.

하나만 열심히 오래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소윤 씨는 한 가지만 파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좋아하는 것 하나만 죽어라 파서 장인이 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다들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10년, 20년 동안 하면 못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한다. 잘하고 노하우도 생기고 프로페셔널해진다. 보컬도 장르가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만의 무기가 생겨야 한다.

천재들에게 기죽을 필요 없다고 말한다. 재능이 중요하지만 노력하면 재능을 뛰어넘지는 못해도 재능과는 다른 무언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한 경험치가 생기고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별화되는 무기가 생긴다.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이 되세요

소윤 씨는 자신의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음악을 계속할수록 축하하는 자리나 좋은 일에 초대되어 기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행복하다. 좋은 자리에 분위기를 더해주고 돈까지 버니까 일석이조다.

"'ONLY ONE'이 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소윤 씨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살면서 누구나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게 된다. 대부분 넘버원이 되고자 노력을 한다. 하지만 넘버원은 항상 힘이 들고 지친다. 온리원이 되는 건 지치지 않는다. 넘버원이 되려면 항상 남들과 비교해야 하고 자신을 옭아매게 되지만 온리원의 마음이 되면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색깔과 방향으로 온리원이 되라고 말한다. 그러면 지치지 않고 오래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다.

05

음악과 음향을 만들어내는 기술자

음악 프로듀서&엔지니어

양성원

양성원

음악 프로듀서, 엔지니어

양성원 씨는 음악 프로듀서이자 음향 엔지니어다. '마리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하다. 그가 하는 일은 영상에 사용되는 사운드 메이킹과, 음악에서 최후 포스트 작업인 녹음과 레코딩, 믹싱 등의 작업이다. 포스트 작업이란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그것을 녹음해서 하나의 콘텐츠로 만드는 과정으로, 일련의 엠피쓰리나 CD로 들을 수 있게끔 완성하는 단계다. 그에 맞는 엔지니어의 역할을 하며, 공연장에 가면 확성장치인 PA(Public Address)시스템을 통해 관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음향 오퍼레이터(operator) 역할을 하고 있다.

보람 있지만 불규칙한 생활은 힘들어요

이 일을 하며 성원 씨는 클라이언트의 지향점과 자신이 원했던 방향의 교차점이 맞아 떨어졌을 때 가장 보람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서로 포기할 정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해결했을 때도 상당히 보람을 느낀다.

특히 얼마 전 부산에서 개봉한 스릴러 독립장편영화 '베일'에 애착을 갖고 있다. 제작비와 환경 등의 조건이 매우 열악했지만 감독님의 열정과 노력으로 보스턴 영화제와 해외에서 꾸준히 초청되는 등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고 이 영화에 참여해서 기여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생활이 불규칙한 것은 힘들다. 장시간 집중력이 요구되는 일의 특성상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 한 달에 영화를 4편 이상씩 꾸준히 봐왔는데 최근엔 그것도 어렵게 됐다.

보는 것만큼 화려하지만은 않아요

보이는 면만 보면 화려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 무작정 뛰어드는 후배들이 많은데 어느 수준으로 올라오기까지는 힘든 과정이 많다고 한다.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이지만 감각보다는 다양한 현장 경험과 노력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레코딩에 있어서도 클라이언트의 반응에 민감해야 하고 PA 쪽은 돌이킬 수 없는 라이브의 특성 때문에 사전에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작은 실수라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음향 엔지니어는 잘해도 본전인 직업이라고 한다.

천문학자를 꿈꾸던 어린 시절

성원 씨는 어린 시절,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학생이었다. 그래서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다. 과학을 잘했고 호기심이 많았다.

중고등학교 땐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작곡을 했다. 대학교 때 본격적으로 그룹사운드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다. 밴드 활동과 작곡 모임의 활동 등 음악과 관련된 활동 위주로 경험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기초 능력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전공은 전자물리학이었다. 어릴 때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 때문에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다. 대학원에서는 학부 때와는 다른 영상음악을 공부했다. 음악 활동을 하면서 영상미디어 관련된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선택한 것이다.

성원 씨가 음악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과 친척 분들은 배고프고 안정적이지 못한 음악 쪽의 일을 반대하셨다. 내성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성격 때문에 생계조차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성원 씨는 합리적으로 설득을 꾸준히 하면서 자신의 일에 성과를 냈다. 참여하

는 프로젝트의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고 가시적인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가족들에게도 차츰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첫 창업의 실패를 통해 많이 배웠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와 녹음실을 창업했다. 당시엔 모바일, 인터넷 등 IT 붐이 일어나서 관련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잠깐 잘되다가 경쟁이 치열해져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 그 후에 음반제작사의 프로듀서, 이화여대 부설 녹음실의 엔지니어, 게임회사의 사운드 디자이너 일도 했었다. 한동안은 프리랜서 작곡가와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포스트 쪽 일을 하다가 지금의 '마리오 스튜디오'를 운영하게 되었다.

첫 창업으로 사회에 도전했을 때 노력과 열정과는 무관하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많이 힘들었다. 그때 음악과는 무관한 다양한 일을 하며 가장 힘든 시기를 맞았다. 어떤 면에서는 그 덕분에 성숙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 많은 성찰도 있었지만 인생의 갚진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다.

당시에는 창업 자금의 문제가 우선 컸고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금도 안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셔서 부족하지 않게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네트워킹을 쌓고 꾸준히 신뢰를 쌓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음악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성원 씨는 지금의 회사를 음악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넓은 분야의 문화, 예술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회사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음향 쪽의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음악을 이해해야 하므로 음악활동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아카펠라 그룹을 만들어서 활발히 활동하기도 했었고 음악이나 음향장비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기도 하고 작품에 작곡과 편곡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음악은 단일 산업으로만 보면 쇠퇴하고 있다. 지금처럼 상당히 외롭고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영상, 공연, 방송, 교육 등과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따라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다. 때문에 이쪽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음악적인 것 이외에 다양한 분야로 시야를 넓히고 꾸준히 네트워킹을 해야 하며 공부해야 한다. 특히, 퍼포먼스(공연) 쪽으로는 점점 무대디자인,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이 화려해지고 정교해지면서 파생 산업도 성장하고 있고 무대 관련된 음향엔지니어, 무대감독, 기계감독, 조명감독 등 무대스텝 쪽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본다.

개척하면 길은 열려요

음향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음악과 관련된 경험과 일들을 꾸준히 접해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예를 들면 음악 감상 모임 등의 커뮤니티 활동도 좋고 실제로 연주를 할 수 있는 밴드나 연주 모임도 좋다. 최근엔 전자악기나 전자장비,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니깐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진학을 생각한다면 실용음악과에서 다양한 음악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것도 좋고 음향 쪽으로는 방송음향, 무대음향과 관련된 학부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또 성원 씨 개인적으로는 전기, 전자 쪽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성원 씨는 작곡을 하다가 최근엔 레코딩, 음향 엔지니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디어(음악, 영상, 방송, 교육 등의 컨텐츠) 제작에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최근엔 장비들도 복잡해지고 기능도 많아져서 이를 다루면서 창의적인 면까지 요구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고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 트렌드인 만큼 이를 놓치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생에서 정해진 것은 없어요.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죠."

성원 씨는 말한다. 지극히 평범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공무원이나 회사원처럼 사회적으로 정해진 길을 가면 된다. 하지만 꿈이 있고 그 것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비록 힘겨운 과정이 있다고 해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노력해서 이루는 것도 멋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06

작곡과를 나와서 OST로 이름을 알렸어요

싱어 송 라이터

차여울

차여울

싱어 송 라이터

차여울 씨는 2007년 OST, 즉 영화음악으로 데뷔해서 7년차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다. 가수는 분야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녀는 영화음악 일을 많이 하는 싱어 송 라이터다.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고 드라마 OST를 불러 이름을 알렸다. 어릴 때부터 노래가 좋았던 여울 씨는 꿈꾸던 뮤지션이 되었지만 여전히 꿈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우연히 부른 OST가 인기를 끌었어요

여울 씨는 방송활동은 하지 않지만 음원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대중

과 만난다. 일반적으로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들은 방송활동을 위주로 하지만 기획사가 없이 혼자 하는 가수들은 홍보의 기회가 적고 음원 상으로만 대중들을 만나게 된다.

OST 가수는 제작사에서 음원을 주면 그 곡을 연습해서 녹음하는 것이 보컬로서 역할의 끝이다. 여울 씨가 직접 작곡한 곡의 경우는 곡을 듣고 제작사에서 연락이 온다. 그러면 멜로디나 노래가사를 드라마에 맞게 편곡한다. 드라마의 내용이 너무 드러나도 안 되며 한 장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장면에 묻을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제작사에서는 가수의 목소리를 듣고 제작하려는 OST와 어울릴 만한 목소리를 찾아서 가수를 선정하게 된다.

처음부터 OST를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학과 선배가 드라마 OST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서 데모(샘플 음원)를 만들었는데,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 들어보고 목소리를 마음에 들어 해 여울 씨가 녹음을 하게 됐다. 그 곡이 바로 〈내조의 여왕〉 OST인 '사랑이야'라는 곡이다.

이렇게 여울 씨의 데뷔곡이 된 노래는 큰 인기를 끌었다. 길을 가다가 자신의 노래가 나왔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한다. 무명 가수의 노래가 기획사의 도움 없이 TV에서 나온다는 것이 기뻤고, 무작위로 틀어놓는 길거리에서 제 노래가 여기저기에서 들릴 때 드라마의 인기를 실감하며 정말 기뻤다.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여울 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갖고 합창단, 가요제 등 항상 노래를 해왔다. 그러다가 마음에 가수라는 꿈이 직접적으로 와 닿은 것은 고등학교 때였다. 가요제에서 노래를 하는데 관객들이 일제히 핸드폰을 들고 호응해줬던 것이 마음에 큰 울림을 줬다. 이전에는 막연히 가수를 꿈 꿨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 감정과 순간, 흥분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아이돌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그런데 기획사나 주변으로부터 노래로만 칭찬을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어린 생각에 '예쁘지 않아서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외모를 대신해 특기를 찾고자 시작한 것이 작곡이었다.

클래식 작곡은 고교 1학년부터 배웠고, 가요 작곡은 따로 배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쓴 곡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싶다고 느끼게 됐다. 자신이 쓴 곡은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여울 씨가 학교에 다닐 때는 오디션이 활성화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합창단이나 외부 가요제 등에 참가했다. 그때는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것이 노래였다. 운이 좋게도 잘하는 것을 일찍 찾을 수 있었다.

작곡과에 갔지만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했죠

대학도 작곡이 좋아 별 고민 없이 작곡과를 갔다. 너무 어릴 때부터 음악만 해서 그런지 다른 것을 하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된다고 한다. 실용음악과보다는 작곡과를 간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작곡의 모태인 클래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보다 음악을 넓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음악활동에 전념해보고 싶어 약 3년 간 휴학을 한 적도 있었다. 휴학 기간 동안 보컬과 재즈피아노 레슨도 받고, 작곡을 위한 미디 등 음악에 필요한 것들을 따로 공부했다.

물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레슨, 동요 녹음, 과학송 녹음 등의 다양한 일도 했다. 클래식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실용음악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 공부에 치중하기 보다는 주로 외부에서 공연하는 것에 치중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클래식이던 실용음악이던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기도 한다. 당시 그년의 보컬 영역이 컷기 때문에 클래식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클래식의 기반이 있으면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가수라면 실용음악과, 싱어 송 라이터는 작곡과를 추천해요

가수라는 직업이라면 실용음악이 더 좋고, 싱어 송 라이터라면 클래식이 더 좋다고 여울 씨는 생각한다. 보컬의 테크닉을 늘리기에는 실용음악과가 더 좋기 때문이다. 그녀가 클래식을 전공하며 아쉬웠던 것은 공연 장소를 학교에서 제공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를 외부에서 찾았지만 만약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외부에서 장소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보컬에 더 큰 꿈이 있다면, 강제적으로라도 학생들에게 무대 경험을 쌓게 하는 학과를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작곡과에서는 학문에 초점이 있고 실용음악에서는 실기 위주다. 실전 경험이나 기술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폭넓게 배우고 싶다면 작곡과가 좋지만 그게 아니라 보컬 자체의 한 길을 꿈꾼다면 실용음악과가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꼭 대학에 가야 할까? 대학에 가지 않을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학은 꼭 원하지 않는 과목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극히 적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좋아한다고 해서 열심히 파고들지는 않는다. 여울 씨는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고 공부를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대학, 학원 등 잡아줄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한다.

또 대학에 진학할 경우,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과 경쟁심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인맥이 되기도 한다. 오랜 시간동안 구축된 커리큘럼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기에 혼자서 원하는 것만

공부했을 때 올바르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을 하고자 하면 싫어도 공부해야 할 것,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노래뿐 아니라 다른 능력도 기르세요

여울 씨는 목소리로 승부하는 가수라면 자기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만의 목소리 색깔을 갖는 것과 튀는 목소리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OST를 부른다면 드라마의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가수를 알 수 있는 정도면 좋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위 1%만 바라보고 가수는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수라는 직업은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1%가 아니고서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 때문에 음악이 좋다고 음악에만 매달리는 것보다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경우는 작곡이었다. 그 덕분에 지금 자신의 음악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그냥 노래만 준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매력을 보여주는 '멀티테이너'가 되어야 한다.

그녀 역시 작곡을 공부했고, 다양한 곳에 어우러지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뮤지컬, CF음악, 애니메이션, 동요, 내레이션 등 음성을 사용하는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었다. 가수를 하더라도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다양한 경험과 연습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언한다.

대중에게 더 다가가 제 음악을 알리고 싶어요

여울 씨는 2년 전 한 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현한 적이 있다. 그런데 방송은 재미 요소 위주로 편집하다 보니 자신의 캐릭터를 다른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대중들은 그 모습을 믿고 비판하는 것을 겪으며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방송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양날의 검처럼 방송이 있어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방송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만 극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한다. 방송도 각각의 캐릭터를 활용하고 가수들도 방송을 활용할 필요를 느낀다.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사수는 가만히 기다리면 일은 들어오지 않는다. 한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웃는 모습,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일은 끊기게 된다. 때문에 최대한 처음 보는 분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한다.

대중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대중이 자신을 좋아해야 자신의 음악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대중을 기다리기보다는 나부터 대중에게 먼저 다가가야 한다.

앞으로 여울 씨는 싱어 송 라이터로서 자신의 이름과 음악을 대중들에게 보다 많이 알리고 싶다고 한다.

나의 꿈을
디자인 하다

만든 사람들

기획

교육부 국장 박융수
교육부 과장 최승복
교육부 연구관 정양순
교육부 연구사 이규운
교육부 연구사 유명한

연구/ 집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이윤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위촉 연구원 임정훈
한국교육방송 PD 강영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책임연구원 양안나

자문

라이스메이커 민영범 대표
조창원 작가
여종욱 디자이너